

올바른 민간조사 제도 정착 선도하다

(주)GP&C 김성도 대표 (www.helpme.ne.kr)

(주)GP&C가 주목을 받고 있다. 대한민간조사협회 서울시 서부지회로 등록되어 있는 민간조사 전문기업인 (주)GP&C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, 개인조사, 기업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종합 컨설팅 기업이다.



(주)GP&C의 김성도 대표는 “향후 선진 부동산 자산관리 및 컨설팅 시스템을 더욱 연구해 고객들에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”면서 “OECD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 올바른 민간조사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

특정 제품이나 아이템이 아닌 사람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(주)GP&C는 인재 중심의 기업이다. “핵심인재의 확보와 육성을 통해 성장하겠다”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(주)GP&C의 김성도 대표를 만났다.

휴먼 네트워크 바탕된 민간조사 전문기업

회사를 키우고 발전하는데 있어 인재의 확보와 육성은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.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지나침이 없다. (주)GP&C의 김성도 대표는 “좋은 인맥을 확보하고 그 인맥을 관리, 활용하는 것 자체가 매출과 직결된다”면서 “현재 준비 중인 주요 사업도 휴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”이라고 전망하고 있다. 민간조사 전문기업인 (주)GP&C는 개인 및 기업의 민간조사업무

를 비롯하여 특히 가출 및 실종자 찾기, 부동산 매니지먼트, 부동산 컨설팅, B/DTotal Service, 조상땅찾기 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 그러한 성과로 인천 송도자유무역지구 내 상업시설에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, 서울시 서초구 내 투자물건 매입/매각대행을 완료했으며, 서울시 강남구 사옥매입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서울시 용산 국제업부지구 내 토지매입 관련 컨설팅 및 대행, 경상남북도 내 조상땅 찾기 수행, 외국계 부동산 컨설팅 그룹 고객 사옥 매입/매각을 완료하기도 했다. 또한 또한 민간조사 부분에서는 특유의 조상땅찾기에서 쌓여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녀자 및 정신지체 실종자 의뢰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. GP&C는 고객의 현 상태 및 요구 조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정직과 신뢰라는 틀 안에서 업무를 처리해 고객들로부터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. 특히 민간조사 분야의 경우 철저한 현장조사 및 선별 검증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비밀유지에 만전을 기하며, 한 번 맺어진 고객과의 인연을 끝까지 유지하고, 고객의 요구에 맞춘 철저한 팀 단위의 운영 및 다년간의 검증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정된 시간과 비용으로 업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. 김 대표는 “예민한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주위의 잡음 가운데서 정확한 목소리를 잡아내는 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 현재 (주)GP&C는 현재 기업체 내부의 기밀유출 관련 조사 및 가출인 소재파악 서비스, 대기업 자회사 사옥 매입 관련 컨설팅 및 대행 서비스, 공공기관 건물매입 관련 컨설팅 및 매입대행, 시공사 전용부지 매입 관련 컨설팅 및 매입 대행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. 최근 일본조사

120 NEWSMAKER 2011. 05

협회와 업무제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조사 전담 컨설팅 계약 체결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그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김 대표는 “(주)GP&C는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인만큼 회사의 인재들과 모든 이윤을 공유하고자 한다”면서 “임직원들과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 할 수 있는 ‘강력한 동기부여’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함으로써 모든 일에 성공적인 신화를 쓸 수 있다. 이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신뢰와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”고 덧붙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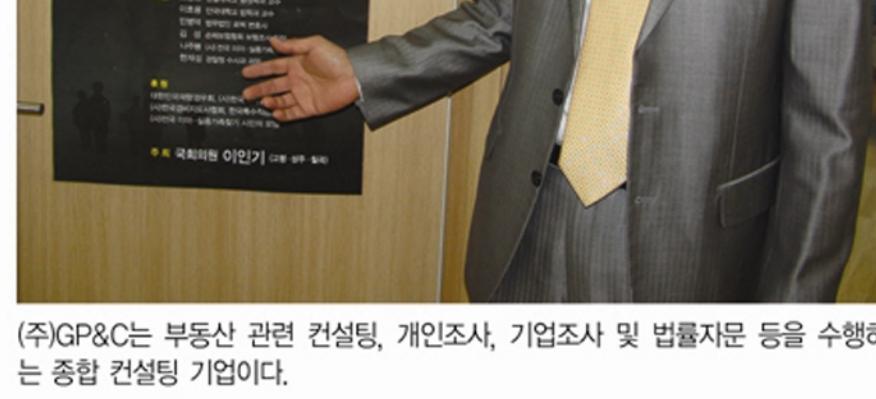
조상땅 찾기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라

(주)GP&C의 김성도 대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부동산 개발, 관리(임대), 조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베테랑이다. 그러한 실력을 바탕으로 그는 최근 민간조사분야의 노하우를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접목해 ‘조상땅 찾기’ 분야에서 100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사업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. 김 대표는 “조상땅 찾기는 우선 할아버지 제적등본 발급 및 족보확인, 상속권 확인 등을 거쳐 조상과 관련된 지역의 범위를 설정한다”며



민간조사 전문기업인 (주)GP&C는 개인 및 기업의 민간조사업무를 비롯하여 특히 가출 및 실종자 찾기, 부동산 매니지먼트, 부동산 컨설팅, B/DTotal Service, 조상땅찾기 컨설팅 등의 다양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.

“이후 정부지적 전산망, 토지 및 임야 조사부, 조선총독부 관보, 분배농지자료, 무주부동산공고 및 심지어 조선시대 양안까지도 조사하는 등 노력이 반영되어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”고 설명했다. 최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정보열람이 용이해지면서 개인 차원의 조상땅 찾기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. 그러나 조상땅을 찾는다 해도 과거 주소지 입증이 쉽지 않아 상속 등기 단계에서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김 대표는 “현지 탐문과 자료조사를 통해 실거주 및 토지를 소유했다는 완벽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조상땅 찾기는 신기루와 같다”면서 “조상땅 찾기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손잡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될 수 있다”고 조언했다. 한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소형빌딩의 매니지먼트를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부동산의 수익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특히 빌딩 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차업무관리 부분에 있어 완벽한 일처리를 실현해 거두며 호평을 받고 있는 (주)GP&C의 김성도 대표는 “향후 선진 부동산 자산관리 및 컨설팅 시스템을 더욱 연구해 고객들에게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”면서 “OECD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 올바른 민간조사 제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”고 포부를 밝혔다. NM



(주)GP&C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, 개인조사, 기업조사 및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종합 컨설팅 기업이다.